



요약

사실

아드마 프리마리아의 새로운 영적활성자 가브리엘 크루즈 신부.

양성 여정

이름의 신비 :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 2.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5. 요셉과 마리아, 한 남성과 한 여성.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6. 불에 타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 나무이신 성모 마리아.

가족의 연대기

- 인도-방갈로 관구 살레시오 가족 영성의 날 개최

- 폴란드 - 유럽 중부와 북부 유럽의 살레시오 가족으로 함께 걷다.

- 2024년 파티마(포르투갈)에서 개최되는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

월간 기도지향

세계 평화를 위해: 지금은 암흑기입니다.

사실

아드마 프리마리아의 새로운 영적활성자 가브리엘 크루즈 신부

소중한 아드마 형제 자매들에게

P.1

P.3

P.6

P.8

P.10

P.10

P.11

P.12

교회가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를 경축하는 이 시기에, 모든 선의의 사람들을 대표하여 마리아와 요셉,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지 놀라움으로 묵상하면서, 저의 형제적 인사도 받아 주십시오. 이 기회를 통해 총장 신부님을 대신하여 몇 가지 가족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알렉산드로 구에바라 신부는 우리 아드마회의 영적활성자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자신의 관구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도회의 총회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세계 조정자인 레나토 발레라와 그의 평의회 결에서 아드마 프리마리아를 계속 동반하기 위해 가브리엘 크루즈 신부가 임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드로 신부가 지난 몇 년 동안 큰 열정과 헌신으로 여러분을 동반하면서 수행한 봉사에 감사드리며, 이제 풍부한 선교 경험을 지닌 가브리엘 신부, 그리고 그와 함께 할 피에르루이지 카메로니 신부의 협력으로, 교회적 성화를 향한 발걸음을 통해, 살레시오가족 구성원들의 마음 안에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분은 파티마에서 열릴 차기 세계대회를 위해 여러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드마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사무국 구성원들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아드마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관구장들과 관구 담당자들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가브리엘 신부의 이메일 주소는 animatore.spirituale@admadonbosco.org 또는 gacruz@sdb.org 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머니요 스승으로 주신 마리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며, 그분을 신뢰합니다. 성모님과 함께 탁월한 교육자이시며, 우리 마음 안에 씨를 뿌리신, 그 결실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지내고, 돈 보스코의 달인 지금, 살레시오 가족으로서, 마리아께 드리는 사랑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며, 우리 마음의 포옹을 나눕시다.

사랑으로 함께 하며

조안 루이스 플라야 신부
살레시오 가족 총장대리

토리노-로마, 2024년 1월 1일, 성머님의 모성애의 축일에.

Adma의 새로운 영적 애니메이터 발표

가브리엘 신부는 멕시코에서 1977년 6월 17일에 태어났다. 2024년 1월 1일에 도움이신 마리아회(아드마)의 새로운 세계 영적활성자가 되었다.

나는 1997년에 돈 보스코의 살레시안이 되었고, 2006년 6월 30일에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학문들 중에서,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와 아랍 및 이슬람 연구소에서 신학, 선교학, 종교신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의 최종 학력은 교황청립 라테라노 대학교의 시성 대학원을 졸업이며, 이 학교는 시성 부서와의 협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저는 살레시오회 안에서 양성과 교수로서 양성자, 교수, 양성 집들과 신학교의 총장으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고향에서 그리고 그후 파키스탄에서 2022년 9월 1일까지 하느님의 종 아카시 바쉬르의 시복 및 시성을 위해 조사 부담당관으로 일했으며, 남필리핀 관구대리와 관구평의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파견되었으며, 살레시안들의 시복 시성 조사 담당관과 함께 일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총장신부님으로부터 도움이신 마리아회(아드마)의 영적활성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양성 여정

이름의 신비: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 2

아홉 살 꿈 속의 이름

밖에서부터 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꿈의 시작에 얼굴이 너무 눈부셔서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하얀 겹옷을 입은 존귀한 남자 어른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어린 요한을 (그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 부르는 목소리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것이었으며, 명령을 내렸다(나에게 명령했다). 이것은 실현되어야 할 꿈으로 이해되는(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자아실현)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누구나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혼자 자신을 부르지는 않는다. 이름 안에는 성소가 쓰여 있고, 그 안에 방법 (주먹다짐으로 하지 말고 온유와 사랑으로), 사명/목적 (이들을 네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내용(죄와 덕에 대한 교훈)이 들어 있다.

당신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모두 그 질문처럼 신비한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리아도 이와 같은 인사에 당황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답을 주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답을 듣지 못했다면 아드마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돈 보스코의 체험을 통해서 볼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수천년 교회의 체험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의 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낳고 계십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원하는 것이 한꺼번에 즉시 성취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의 교육, 교육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교정을 위해, 교육, 인내, 긴 시간이 필요한 하느님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성모님은 어린 요한에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돈 보스코는 1997년 5월 16일, 로마 예수성심 성당에서 꿈에 대해 이해하게 됩니다. “그날 아침 돈 보스코는 도움이신 마리아 제대에서 미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미사를 드리는 동안 돈 보스코는 너무나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으며, 그래서 15번이나 미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 보스코를 도와주던 비글리에띠 신부는, 그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 왜

그렇게 많이 감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싶어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그리에띠 신부는 평소처럼 돈 보스코가 안정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돈 보스코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때 수도회에 관한 열 살 때의 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때 어머니와 형제들의 꿈 해몽을 보고 들었지만... 성모님께서서는 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어려움과 분쟁과 희생의 62년이 지난 지금, 로마의 예수성심성당을 건립하고서야, 갑자기 어렸을 때 꿈을 통해 신비롭게 예언되었던, 나의 사명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카스텔누오보 베키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성당까지는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이었는지요! 그는 이제 자신의 일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면서, 거룩한 섭리와 하느님 품에서의 영원한 평화를, 확신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MB, XVIII, 340-341).

때때로 하느님의 길들은 너무 구불구불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왔던 방식과 다르게 보이지만, 믿음에서 오는 인내만이 거룩한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는 유일한 것이 됩니다.

가족의 역사와 화해하십시오. 꿈을 꾸 다음날 아침 어린 요한은 가족과 함께 꿈에 대해 나눕니다. “재미있는 꿈이네”라며 호감을 가지고 듣고 반응하는 가족들, 엄마와 할머니도 한마디씩 하십니다. “양과 염소와 동물들의 우두머리가 될 거야”, “사제가 될지 누가 아니?”, “도둑들의 우두머리”, “**꿈은 다 헛된 거야**.” 나도 들으면서 할머니와 같이 생각했다고, 손으로 기록한 원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의 힘든 농부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다른 것은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돈 보스코의 가족과의 관계를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아버지를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화하고, 각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겼으며,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의견의 차이로 이별의 어려움을 선택해야 할 때도 (몰리아 농장), 지혜롭고 균형잡힌 어머니의 슬기로운 현존은 이 어려운 관계의 성장을 평화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족의 역사를 다시 읽고, 우리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의 상처입은 관계를 치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응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균형 잡힌 인격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태도는 이러한 진실에서 도피하거나,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성소와 사명 발전을 막게 될 것입니다.

2. 이름의 유산

아들에게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름에는 모든 독창성과 유일성이 있습니다. 마리아 잠브라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기원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에게는 그의 자녀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름을 줍니다.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이름으로 불리며, 그냥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니라 결정적인 한 사람이 되는 은총입니다. 우리의 개별성은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은 결정적인 표시인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명백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한 가문에 속한다는 것, 운명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목소리로 부르심을 받고, 의무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속받은 유대를 통해,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와 관련이 없더라도 우리의 것인 것처럼 책임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그것들은 우리에게 직접 연관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부르심이며, 실제 역사를 형성하는 연속성이므로, 우리는 언제나 상속자이며 또한 계승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 기원이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름은 우리에게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성을 주며, 역사적 책임을 줍니다. 그것은 높은 자리에 앉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가 책임을 지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역사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계속됨의 관리자입니다. 역사적 책임은 또한 우리의 한계, 생성, 근원에 대한 인식처럼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직면하게 합니다.” (M. 잠바르노, 영혼에 대해 이해하기 위하여, 118).

3. 나타나엘 이야기(요한 1,45-51)

배경. 바르톨로메오라고 알려진 나타나엘은 예수님의 열 두 사도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부분에는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의 소명이야기, 즉,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 들려줍니다. 이름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정말 호감이 가는 인물이며, 자신의 삶으로 점차 이를 이해해가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나자렛의 예수를 만났으며, 그가 율법서와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나타나엘은 무척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나자렛 같이 하찮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한 남성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스캔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이, 이 세상에서 자기만을 찾는 이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최고의 선의 표징인 복음적 논리에서 옴을 압니다. 필립보는 동료의 의심을 풀어주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그 자신이 체험 스승에 대한 체험을, 동료도 체험하도록 초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스캔들과 인간의 자만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요한 1,46)고 말했던 단순한 초대에의 응답이 그가 신비를 받아들이게 된 것처럼.

만남. 진지한 탐구와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나타나엘은 이미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을 향해 걸어오는 그를 보시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에게, 참된 이스라엘인이며, 거짓이 없는 사람이며 하느님의 가난한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미래의 제자인 그를, ‘남은 자’, 하느님 백성 중의 한 사람으로 여기시는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알아 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에 놀라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라고 묻습니다. 이는 예수라는 인격의 거룩한 근원, 인간에 대해 알고 있는 초자연적인 인식,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 대해 알고 계시고 각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아시기 때문에, 나타나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십니다.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사실은 랍비들이 나무 아래서 율법서를 읽고 논평하는 메시아에 관한 유다 전통에 대해 나타나엘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또한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하느님 사랑의 시선으로 그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나타나엘은 이러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 굴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가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요한 1,49).

약속. 나타나엘은 메시아에 대한 인간적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의 더 많은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앞으로는 더 큰일을 보게 될 것이다”(요한 1,50). 제자들의 믿음은, 사람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목활동의 표징을 통해 강화됩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계시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단수로 되어 있는 본문 구절에서 “너희는 보게 되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는 예언을 담고 있으며, 그 영광은 아버지께로 그가 되돌아갈 때까지 전 생애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 구절은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세례자 요한과 비교하는 적은 그룹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지만(요한 1,19-34), 모든 인용구를 통해 예수라는 인물에게로 점점 커져가는 움직임의 절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어서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어린양(요한 1,36), 랍비(요한 1,38), 메시아(요한 1,41),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모세가 기록한 분(요한 1,45),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요한 1,49) 라는 칭호로 고백합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며 자신에 대해 대답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스승을 소개하는데 실수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맥락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희망을

뛰어 넘어 묵시적 언어를 사용하셨으며, 하느님 아버지의 지속적인 계시와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야 야곱의 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창 28,12). 오르고 내려오는 것은 예수의 인간성과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사람들 사이에 계시면서도 하느님 아버지와 친교를 나누시는, 계시자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이 하느님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장소)” 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예수는 참 이스라엘인으로서 “하느님의 집” 앞에서 있으며, “하늘의 문” 앞에서 서있는 분으로 예언된 복음 선포자로서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을 묵상하는 곳입니다. 인간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권위로 계시되었으며, 말씀이 인간이 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거룩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첫 제자들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요한이 그의 입을 통해 예수의 인격에 대한 신비의 깊이에 대해,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곳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4. 구체적인 발걸음을 위하여

요한 보스코가 꿈에서 체험한 것을 생의 말기에 깨닫게 된 것과, 예수께서 나타나엘에게 계시하신 이름의 신비는, 예수 부활의 빛으로 우리도, 요한 보스코가 생의 말기에 꿈을 이해하게 되고, 나타나엘이 이름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영화의 의미가 오프닝에서 드러나지 않고 마지막 장면에서 드러나듯이, “지금 우리의 시간입니다” 삶의 역동성은 점차적으로 지속적인 성장 과정을 통해 이해됩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약성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시간에 따른 인간의 덕은 인내 또는 자기 절제(upomone’)입니다. 그러므로 장사꾼보다는 농부에 대해 더 많이 말하고, 거두어들이는 사람보다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 더 말합니다. 자기절제 (upo=아래, meno=머물다)라는 용어는 글자 그대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며 “십자가 아래 계시는” 마리아의 자세입니다. 이처럼 마리아께서는 그 꿈이야기와 우리의 역사 안에서, 성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프란체스코 마르코치오, SDB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5. 요셉과 마리아, 한 남성과 한 여성

헤로데의 폭력을 피해 낯선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성가정은 나자렛에 도착합니다. 전쟁과 이주는 오늘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는 비극적인 사건과 모순되는 일들이 있으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모든 가정들은 그 영향을 받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느님의 뜻과 시대의 사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진리를 복음에 비추어 관상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나자렛으로 갑시다.

현대 스토리텔링의 성 혁명

고대의 문제는 왕조의 폭력이었다면 현대의 문제는 이념적 폭력입니다. 물건과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서 물건과 사람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평등 신화와 나치의 인종 신화가 오늘날은 자연적, 초자연적 기반도 없고 가족의 뿌리와 성 정체성도 없으며, 모든 전통을 망각하고 자신의 욕망으로 기울어지는 관계와 개인의 신화로 건너갔습니다.

인간은 명백하게 가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두 가지 비극은 낙태와 아버지의 죽음, 어린이들의 신체적 학살과 아버지들의 문화적 학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어렵지 않습니다. 여성이 어머니가 되고 남성이 아버지가 되는 운명에 대해 모멸감을 느끼는 것에 오늘날은 성의 자연적 차이를 평준화하고 평가절하하거나 심지어 없애려는 시도가 더해졌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 되는 것은 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취향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항상 있었던 상식과 현대 과학이 성취한 것에 명백히 모순됩니다. 사실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적 위치가 분명하게 구별되고 명확히 부부애로 결합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가족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기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교육적, 심리적, 영적 여정을 동반해 주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역할과 성 정체성의 혼돈,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혼란과 남성과 여성이 지닌 고유한 재능과 임무가 불분명해지면서 소년, 소녀들의 정서적 성숙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성인 자신도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서는 존중받지 못하고, 대화는 갈등으로, 감정은 분노로 바뀌고, 친밀감은 소외로 변하게 됩니다.

성 혁명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배딘터가 페미니즘의 역사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관찰한 대로, 1968년의 시위와 성 혁명이 가져온 변화가 ‘5천 년을 이어온 성 역할의 구별과 세계를 단시간에 파괴’했습니다.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정에 관한 아름다운 교리교육 중 하나에서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고 애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성경 속의 성 교육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자렛 가정에서의 체험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 세대의 교차를 구원의 역사로 제시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을 부각시킬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신성한 것이며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우리를 하느님의 모습과 닮은 존재로 만드는 다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른 종교의 이야기에 비해 성경의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측면 중 하나는 **하느님이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결정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가정 안에서 사람이 되셨으며 중성이 아니라 남자아이가 되었고 마리아는 다윗 가문의 남자인 요셉의 동정녀 아내로 소개됩니다.

놀랍게도 마리아는 천사에게서 ‘은총이 가득한 분’이라는 인사를 받았고,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불렸습니다. 마리아는 거룩한 임신을 하여 하느님의 아들을 낳고



요셉은 **역사적 혈통** 을 보장해줍니다.

사용되는 언어가 현저히 다릅니다. 요셉은 나탄이 다윗 왕에게 한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2 사무 7,11-13). 반면에 마리아에게 말하는 가브리엘 천사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루카 1, 30-31).

마리아는 모든 여성과 마찬가지로 부드러움을, 요셉은 모든 남성과 마찬가지로 안정감을 줍니다. 결국 하느님은 계시를 통해 가정에서 경험하는 현실, 즉 여성은 남성의 집이고 남성은 여성에게 집을 지어준다는 사실을 가치롭게 여기십니다.

여성의 모성성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자비(히브리어로 ‘자비’는 문자 그대로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반면, 남성의 부성성은 하느님의 정의를 더 잘 나타냅니다. 하느님 안에서 자비와 정의는 하나이며, 하느님은 정확하게 자비의 관점에서 당신의 정의를 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의 상호작용 앞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공통된 다산성이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남성은 여성 없이 다산할 수 없으며, 여성은 남성 없이 다산할 수 없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온전히 내어주지 않고는 다산할 수 없으며, 여성은 남성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고는 다산할 수 없습니다.

라칭거 추기경은 교회 내 남성과 여성의 협력에 관한 아름다운 편지에서 ‘여성 품고, 남성 전달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썼습니다.

L. Bouyer 같은 훌륭한 신학자는 “남성은 대표하고 여성은 그 대표하는 것 자체이다”고 했습니다. 남성은 대표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이고, 여성은 자신 안에 그 생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이런 의미에서 항상 자신이 맺는 관계의 주체이지만, 남성은 종종

직무를 맡고 다른 이를 대표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출산의 신비에서 여성의 육체적 고통과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남성의 육체적 고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감정과 교육적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교육 과정에서 이 점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하느님께서 우리 육체에 기록하고 설명하신 단순한 것들입니다.

이는 여성 몸의 수용적 형태와 남성 몸의 활동적 형태만이 아니라, 여성은 더 관계 지향적이고 남성은 행동 지향적이며, 여성의 뇌는 연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남성의 뇌는 구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 놀라운 성별 특성 덕분에 남성과 여성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감성을 민감하게 만들고, 남성은 여성의 정신을 안정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종 보이는 것처럼 여성은 자신의 복잡성과 내적 풍부함의 희생자가 되고, 남성은 사물에 흠어져 사람들에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은 다음과 같은 장인의 공들임이 가정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남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각각 더 나은 남자와 더 나은 여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일일 것입니다. 성숙하게 해 준다는 것은 서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사랑의 기쁨」 221항).

로베르토 카렐리, SDB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6. 불에 타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 나무이신 성모 마리아

에너지는 모든 것이지만 동시에 매우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에너지의 이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큼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빛, 열, 움직임 등의 효과를 제외하고는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창세기에 따르면 이는 하느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자 행동입니다. **따라서 빛은 첫 번째 창조물입니다.** 빛으로부터 창조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에는 그 자체의 논리가 있습니다. 빛이 없었다면 우주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은 자연에서, 주로 하늘의 별들로부터 빛을 얻습니다. 이 별들은 하느님이 창조한 것으로, 단순히 비추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만들었습니다. 고대에 인간들이 그 별들의 빛과 따뜻함의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전통적인 고대 종교에서는 별들을 신으로 여기거나 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은 인간이 모든 것을 빚지고 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에서도 빛과 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물의 하나인 불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에 닿는 것들을 가차 없이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불이 선하게 사용되려면 통제되어야 합니다.** 통제된 불만이 삶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비추고, 데우고, 요리하고, 정화하는 등, 인간다운 삶에 불가결한 모든 요소들을 제공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힘을 가장 능숙하게 다루는 분은 하느님 자신입니다.

탈출기에서 여행하는 백성들은 밤에 불기둥으로 하느님의 인도를 받습니다(탈출 13,21).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에서 천사는 타는 숯을 예언자의 입에 대어 정화시킵니다(이사 6,6)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당신의 친구들을 위해 불을 피우고 생선을 요리하십니다(요한 21,9). 루카 복음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루카 12, 49-50).

예수님은 인류 구원에 대한 열정을 품고 계셨으며, 하느님의 사랑이 온 땅에 불처럼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루카 3,16)에서처럼,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불은 세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함께 모인 제자들과 사도들은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불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그들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해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온 땅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밖으로 나가도록 그들을 재촉합니다(사도2,3)

따라서 불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현실인 바람과 함께 성령, 즉 사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관성 안에서 그 에너지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단테의 말을 빌리자면, 그 에너지만이 태양과 별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일치의 원천으로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모든 종류의 어두움, 심지어 죽음의 어둠까지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신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엘리사벳 데 루카의 작품 ‘드러난 성모님’은 마치 불로 찢어진 것 같습니다. 관객을 향해 전진하는 그녀의 몸은 마치 불꽃의 가장자리를 가르며 길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좌우로 들어 올린 그녀의 두 팔은 불 혀 모양이 되고 그 안에 그녀의 얼굴이 드러나더니 어느 순간, 베일이 열리고 닫히면서 타오르는 불 같은 그녀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성모님은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한 불의 여인이십니다**

교회의 교부들은 성경의 불타지만 타 없어지지 않는 떨기 나무의 상징에서 마리아가 천주의 모친이 되는 신비의 예표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한 피조물이 하느님의 힘에 타 없어지지 않고 그분의 위대함에 소멸되지 않으면서 창조주를 자신의 태중에 모실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힘은 사랑의 힘이기에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1 요한).

다른 한편으로, 모세의 이야기도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는 신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살던 젊은 시절,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열정의 불을 느꼈으며 그 불에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죽였고, 그 사건으로 추방되었습니다(탈출 2,11-21). 모세가 성숙해졌을 때, 하느님께서 그 추방된 곳에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시어 자신이 창조한 백성을 향한 당신의 열정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열정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스인들이 ‘에로스’라고 불렀던 열정적인 사랑이 하느님 안에서는 무상의 자비로운 사랑, 즉 ‘아가페’와 결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신을 벗고 존경심을 가지고 다가아가 하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분과 그분의 권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열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교부들은 불타는 떨기나무의 이미지를 예수님 안에서의 하느님의 육화를 설명하기 위해 기꺼이 사용했습니다. 신성이 인간성 안에 완전히 내재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따뜻하게 하고 정화시키지만 태워 없애지 않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자의 육화 덕분에 하느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두려움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울고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당신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의 손과 목소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자신을 맡기신 것처럼, 육화의 신비 안에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아기는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자신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하도록, 그분과 함께 세상의 재생을 위해 협력하도록 그 아기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현존하시며 그들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루카 9,48).

현대화로 전환은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제어하고 심지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발전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태양이나 바람 또는 불의 변덕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모순적이고, 모호한 결과들은 창조계에 대한 경계도 끝도 없는 조작이 지구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아무도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의 에너지인 성령은 모호하지 않은 유일한 힘이며, 어떤 경우에도 파괴하지 않는 힘입니다.

그것은 불타지만 타 없어지지 않는 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 에너지를 분배하는 기준은 형제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웃과 자연에 대한 존중, 사회 정의, 연대도 에너지의 분배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 여인이신 성모 마리아께 기도합니다. **하느님 사랑의 힘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불의 여인 마리아에게 항상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린다 포처, FMA



가족의 연대기

인도-방갈로 관구 살레시오 가족 영성의 날 개최

인도-방갈로 관구(INK)는 살레시오 가족 영성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11월 26일에는 카르나타카 주 “돈 보스코 아자나할리”, 12월 3일 “돈 보스코 바두탈라” 두 장소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살레시오 가족 350명, 살레시오회원,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녀회원(FMA), 살레시오 협력자 회원, 마드마회원, 돈 보스코 재속회,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선교수녀회원, 원죄없으신 도움이신 마리아 교리교육 수녀회원



과 도움이신 마리아의 수녀회원(SMA)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2회 거행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조직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살레시오 가족정신의 친교

분위기를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방갈로 관구장인 요세 토마스 코이크칼 신부와 부관구장 살빈 카란테리 파울 신부의 참석은 살레시오 가족들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폴란드 - 유럽 중부와 북부 유럽의 살레시오 가족으로 함께 걷다

2023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돈 보스코의 살레시오회(SDB)와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녀회(FMA)의 살레시오 가족 관구담당자들의 모임이 살레시오 다른 가족 대표자들과 함께 크로코비아에서 열렸습니다. 이 모임은 유럽 중부와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살레시오 가족 담당자들의 모임으로 10월과 11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참가자는 폴란드, 독일, 벨기에 북부와 네덜란드, 헝가리, 몰타에서 왔으며, SDB, FMA, 살레시오 협력자회(SSCC),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 돈 보스코 동문회(ExDB), FMA동문회(ExFMA), 돈 보스코 재속회(VDB), 돈 보스코 선교 수녀회(CMB), 나자렛의 마리아 관상 형제회(FCMN)입니다.

우리의 교육적 카리스마적 신원과 복음화의 긍정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 모임은 여러 다른 지역 차원의 만남을 통해, “살레시오 가족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살레시오 가족으로서 지역 안에서 대조해야 할 상황들과 모범 사례 나눔, 도전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발걸음을 위한 몇 가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 청소년 사목 책임자와 함께 일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살레시오 가족으로서, 특히 성소적 동반과 방향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평신도들과 양성에 대해 나누고 함께 하면서, 살레시오 가족 각 그룹에 대한 특별한 카리스마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며, 평신도 그룹의 독특함을 알고 각 회원들에 대한 존중으로 양성하며 동반합니다.

-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 현실과 그들의 가족에서 출발하여, 지난 시간들을 비판하거나 향수에 젖지 않으면서, 하느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본다. 오히려

- 지역에 대한 성찰과 활성화의 도구로서, 지역 관구들에게 활력을 주고, 문화적, 종교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지구 내 살레시오 가족의 보다 큰 조정의 영향을 통한 제안도 연구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사명을 준비하고 있는, VDB, FCMN, CMB의 사명과 신원에 대해서도 나누었다.

이 모임은 살레시오 가족 총장 대리인 조안루이스 플라야 신부가 조직했으며, 사무국에서 에킵으로 일하며 살레시오 협력자회와 동문회 담당으로 도메니코 니구엔 씨, FMA 살레시오 가족 총평의원 레슬리 산디고 수녀, FMA 세계 협력자회 담당인 담당인 루크레시아 우리베 수녀와 가브리엘라 바티노 수녀가 참석했다.

이 모임은 성찰과 소통, 기도와 가족이 함께 하는 순간이 모여, 모든 참가자들 사이에 친교와 영성의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모임은 공동합의성에 의해 진행되었고, 활성화 봉사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날들이었으며, 성령께서 돈 보스코를 통해 젊은이들을 위해, 하느님 백성을 위해, 교회에 주신, 살레시오 가족의 소중한 선물을 살고 숨 쉬는 날들이었습니다.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 2024년 파티마(포르투갈).

상호 연대의 정신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그룹의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연대 기금”이 토리노 프리마리아에 설립되었다.

받은 금액은 다양한 필요에 따라 쓰여지게 되며, 참가자 개인에 대한 별도의 요구는 없다.

모든 기부금은 ADMA 은행계좌로 송금

- (IBAN IT16 V030 6909 6061 0000 0130 575)

- 하거나 다음 링크

<https://www.admadonbosco.org/>의 지침을 따라 보낼 수 있다.

“주님께서서는 기쁨으로 섬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기부를 위해서, 또 기부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룹 대표는 다음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 문의할 수 있다: adma@admadonbosco.org



내가 · 너에게
스승을 · 주겠다

도움이신 마리아 제9차 대회

파티마 2024년 8월 29일 - 9월 1일

등록이 시작됩니다

www.mariaauxiliadora2024.pt

월간 기도지향

우리는 특별한 지향을 위해 전 세계 모든 Adma 그룹이 함께 이 기도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석방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어둠의 때입니다, 어머니. 이 어둠의 때에 저희는 당신의 빛나는 눈에 우리 자신을 담고, 저희의 문제를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이시는, 당신의 마음에 저희 자신을 의탁하나이다.

어머니, 저희는 혼자서는 할 수 없나이다. 당신 아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께로 다시 데려가시오니,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시는 당신은, 우리를 그분 위로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어머니, 평화의 모후시여, 하느님의 조화로움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소서.

아멘.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 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https://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